

밤무대연예인 등치는 '검은손'들

디스코클럽이나 트림 클럽, 바, 스카프, 등 유류업소의 무용수들, 거의 대부분은 조직폭력배들의 엄격한 통제 하에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은손의 발본파악을 염두한 인가형제들이 그들

폭력인물로 불수 없다

< 8 >

지난 12일 새벽 2시에 永東의도 아 술을 판매하던 20대 스트립쇼를 순회 '잡수' 본

현장한 주범이 대검미로 불루스등에 맞춰 10여분간 전단의 스트립쇼를 공연하고 객석으로 내려온(金모양)2인

은 '이제는 이것이 죽기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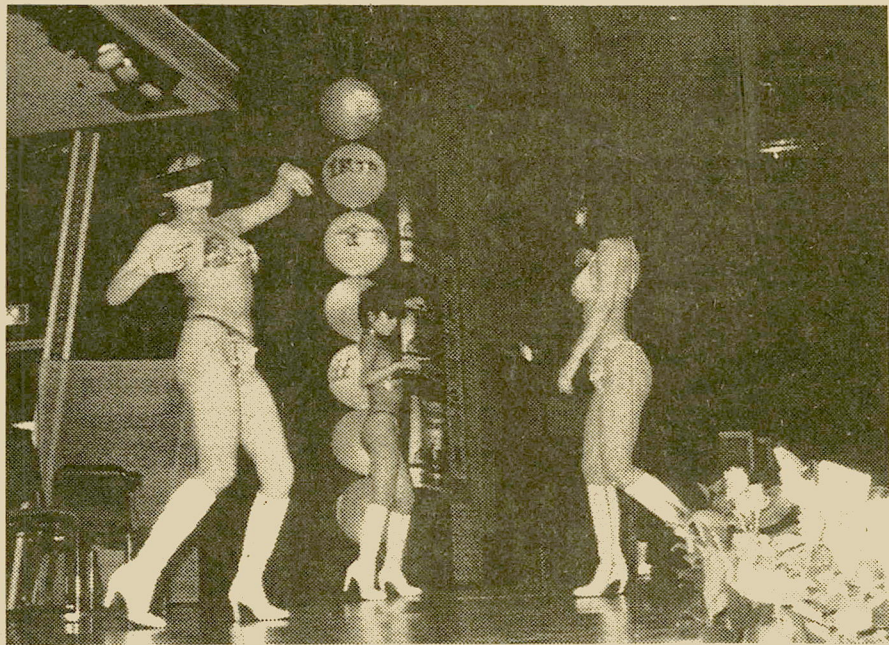
피해·합업소 불을 타고

이들 대부분이 ○포도현선

수입의 70~80% 매니저 몫

업소選定·스케줄·私生活도 통제

偽裝「演藝회사」차려 利權쟁탈전



◇조직폭력단의 제물 디스코클럽등 유류업소 밤무대에서 춤추는 무용수들. 이들은 대부분 조직폭력단의 손아귀 속에서 사생활까지 통제당하며 수입금의 대부분을 갈취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도 있어 전체 흥행규모는 월 2백여~2백50여원 전도로 추산된다.

이중 70~80%가량이 프로덕션의 몫이지만 매니저 몫도 훨씬 적지 않다. 따라서 무용수들을 둘러싼 이권다툼에도 피가 튀게 마련

K포도현선의 李모씨(30)는 '술집에서 몸매가 뛰어나 대상을 고를 때 현지의 관할 조직과 협상해 데려온다'며 '소속된 술집의 빚 청산' 등의 보물 5백만원정도의 '이전'을 관할 조직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梨泰院江南永登浦清涼里에서 디스코테크에 불려온 손님들에서 대상을 골라 '수입'을 일자가 있다'는 식으로 유인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가솔한 연고장들을 볼

이들은 매니저나 조직원들에게에 한창 '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탈출은 염두도 넣지 않는다. 한달에 최고 5백만원까지 출연료를 받지만 70% 이상을 매니저 몫으로 댈기며, 상환가치가 떨어지면 술도가 없으면 때까지는 주머니를 두터이 사정할까지 철저하게 통제한다.

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방종의 출연하는 인기 연예인의 경우라면 밤무대의 출연자라면 폭력배의 지배를 받기밖에 없다.

이들이 출연하고 대영호출업소를 폭력조직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출연료를 취급고 있는 영연방 정부조직이 대부분 폭력조직과 직접 점으로 연결되어 있어 열수없이 관계를 맺게 된다.

이간연연들의 가장 큰 수입원인 밤무대 출연료의 30%를 매니저가 갖게 되고 있는데 매니저의 중 절반가량을 업소 영의·영연방에게 내어준다.

폭력조직의 입찰파문의 음모적자기가 시로 특영업소출연을 장악하는 데 있어 노렸다. 탈린트 노씨가 가족이 노노영에서 전폭력배에 당했다가, 개그맨 K씨가 漢沙리까지 끌려가 매정할뿐했다. 그 애기 100여명에게서 그 장악영한 비로로 되었다.

지방영연방는 현지 폭력배들의 출연장외에 시된다. 또미인 노씨는 지난해麗水공연을 갔다가 폭력배들에게 강제로 順天의 골짜기다 시파해 공영했는가 하면 K씨의 경우는 全州에서 다른 업소출연을 거부하다 현지 폭력배들에게 전폭력배를 두기도 했다.

영연인 K씨(30)는 '밤연소의 출연하는 사람치고 한두번씩 폭력배에게 폭행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한부를 손수리째 도려내'는 대대적인 의과수술이 영연인 임수진인 단종이다. 영연인 아무도 없다. 되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특별취재반】

하지만 폭력배들의 감시파문 에 달아놓지 않았다. 퍼출전에는 영연부조 신해진 퇴폐단속이 무사워 스트립쇼 대신 디스코클럽을 찾았다고 진했다가 매니저와 업소영 영연장에게 추돌을 두들겨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XX기회영으로 불린는 위장 연예회사의 속해있다. 이들의 발본파출영은 A

이 1개업소만 월 1백만 2백만원, B업이 70만 80만원, C업이 50만 60만 원정도로 한 사람이 10여명의 업소에 걸려기 출영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